

LS전선, 층간 차음재 저감성능 1등급 평가

LS전선(대표 구자열)은 층간 차음재 <LS 제로 노이즈 시스템>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경량·중량 충격음의 저감성능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2월25일 발표했다.



해당제품은 고탄성 복합재 등 6개 층의 이중 매질로 구성돼 있다. 폴리에스터(Polyester) 보드, 필러, 발포 폴리에틸렌(Polyethylene) 층이 삼중의 소음진동 차음·흡음 기능을 해 경량 충격음은 물론 중량 충격음까지 효율성 있게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중량충격음 34-35dB, 경량충격음은 33-35dB로 법정 기준보다 층간소음의 90% 이상을 줄여준다고 LS전선은 밝혔다.

현행법상 바닥 충격음 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 이하, 중량충격음 50dB 이하로 규정돼 있다.

<화학저널 2013/02/25>